



내년까지 생활인구 40만명 목표
‘남원누리 시민제도’ 시행
관광·공공시설, 음식·제과점 등
이달부터 가입 즉시 할인 혜택

남원 갈 때 이거 어때?

남원시가 오는 2025년 생활인구 40만 명을 목표로 생활인구의 적극적인 유치에 팔을 걷어 부쳤다.
남원시는 이달부터 누구나 가입할 경우 시민에 준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남원누리 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누리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람, 자매결연 체결 도시 주민(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아산시, 광양시, 화성시, 성남시, 여주시), 남원사랑상품권 발급 증표를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무료입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로 19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남원누리시민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커피

피습, 제과점 등을 이용 시에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누리시민이 지속적으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누리시민증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 즉시 현장발급 후 사용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재방문이 중요하다”며 “남원누리시민이 남원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지역 활력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피부 임상 인프라 ‘바이오테스팅센터’ 착공

농생명 특화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운영 목표

바이오 시험검사와 피부임상을 통해 남원 농생명바이오산업의 특화기반으로 자리잡을 ‘남원 바이오테스팅센터’의 첫 삽을 떴다.
남원시는 지난 6일 노암동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부지에서 최경식 시장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오택립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테스팅센터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한 후 12월까지 센터 내 연구장비 등을 완벽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식약처 인증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이오테스팅센터는 건축면적 1080㎡, 연면적 4066㎡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진다. 센터는 ▲화장품 시험검사 장비 ▲피부임상시험 장비 ▲바이오기업 연구·생산지원 장비 등을 갖춘 전문적인 바이오 시험연구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바이오테스팅센터 운영이 개시되면 화장품 시험검사와 피부임상을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돼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경남 지역 기업들의 수요 충족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바이오 제품 피부임상·시험검사 등을 원스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증센터가 남원시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첨단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사업’, ‘고충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남원시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평생학습 ‘교육의 장’ 정읍평생학습관 개관

요리·목공·도예 실습실 갖춰

정읍시민들의 평생학습 교육의 장이 될 새로운 평생학습관이 개관했다.
지난 6일 옛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장의장 및 시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최중훈 교육장, 전북과학대 이용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모델링을 마쳐 새 건물로 탈바꿈한 정읍시평생학습관의 개관식을 열었다.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도시 으뜸 정읍’이란 비전을 실현할 평생학습관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27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마쳤다.
1층에는 시민을 위한 강의실, 2층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실, 3층에는 청년 취업준비반을 위한 강의실이 마련됐다.



6일 열린 정읍시평생학습관 개관식에서 이학수(왼쪽 아홉번째)시장과 박일(왼쪽 일곱번째) 정읍시의회의장, 윤준병(왼쪽 여덟번째)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개관기념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별관에는 요리, 목공, 도예 등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실습실이 조성돼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삶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읍시는 행복한 시민과 지역 인재양성을 주도하는 재도약의 평생학습도시 시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초가을 ‘정읍농악 9경가세~’

정읍농악단 토요일 상설 공연...11월 16일까지 전통연희 다채



정읍시립농악단이 폭염 휴식기를 마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정읍농악 9경가세~’ 공연을 다시 시작한다. 정읍시립농악단 공연모습. <정읍시 제공>

정읍시립농악단이 폭염 휴식기를 마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정읍농악 9경가세~’ 공연을 다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11월 16일까지 계속되며, 정읍의 전통 농악과 다양한 전통연희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내장산문화광장과 정읍상화차거리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총 10회로, 내장산문화광장에서 6

회, 정읍상화차거리에서 4회가 예정돼 있다. 관람객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읍농악을 비롯해 사물놀이, 버나놀이, 사자춤, 소고체험 등 다양한 전통 연희를 체험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을 준비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정읍의 대표 상설 공연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저탄소 논물관리로 ‘저탄소 쌀’ 인증

특정 시기 논물 빼 토양에 산소 공급...벼 쓰러짐 방지·용수 절감 효과

고창군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추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저탄소 쌀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들은 저탄소 물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벼 뿌리가 깊게 뻗고 토양도 단단해져서 가을철 쓰러짐이 방지됐고, 농업용수 사용량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소비자들은 저탄소 인증 쌀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받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쌀 판매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농식품부의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고창군 흥덕면 여곡·송암 단지의 저탄소 논물관리 실적은 우리나라의 논물관리 평균값 대비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논물관리는 벼 생육 중 물이 필요치 않은 무효분얼기에 논물을 빼 혐기성 토양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면 토양은 호기성상태로 전파돼 메탄 배출량이 감소된다.
가장 탄소 감축 효과가 뛰어난 4주 이상 낙수(논에 댔던 물을 빼는 일)를 실현한 곳의 국가평균값은 0에 가까웠는데 송암·여곡 단지는 56.7%로 매우 우수한 저탄소 논물관리 실적을 얻을 수 있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독서 장려 ‘책 읽는 지자체 대상’

고창군이 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노력들이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이란 결실을 맺었다.
고창군은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해 시상하는 ‘제9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은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독서문화 형성과 책 읽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선정되는 가운데 올해는 고창군과 완도군, 강원 동해시와 홍천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등이 상을 받았다.
고창군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중장년층을 위한 연중 상설강좌 및 인문학 강좌 운영 ▲작은도서관 1관 1동아리 지원 ▲고창황윤석도서관 건립 등 ‘책 읽는 도시 고창’ 만들기에 노력하며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